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재외동포청 인천설치 확정!
배포일자		2023년 5월 8일(월) 총 10매		
담당부서 글로벌도시기획과	담당자 • 글로벌협력팀장 한창현 ☎440-3481 • 담당자 박초롱 ☎440-34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4시 40분(외교부 브리핑 후) 이후 보도 바랍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확정! 1천만 글로벌 도시 동력 확보

- 약 8개월 간 이어진 유치 노력에 결실 맺어, 모두가 원팀이 돼 이뤄낸 쾌거 -
- 재외동포청 출범 전폭 지원, 관련 시책 적극 추진할 예정 -
-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 뉴홍콩시티프로젝트 동력 강화, 968억 생산유발효과 등 기대 -

오는 6월 개청하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들어선다. 이로써 인천이 국내외 1천만 시민을 품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5월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외동포청을 인천시에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관련 법안이 통과돼 외교부 외청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재외동포청은 151명의 조직규모로 오는 6월 5일 출범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서비스정책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소회

유정복 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로 ‘1000만이 함께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시대를 열어가게 됐다’며, “대승적 판단을 내려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야 정치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유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부침도 겪었지만,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재외동포, 인천시 공직자 전체가 원팀이 돼 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신 인천시민과 세계한인회장단 대표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인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출발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이면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최적지”라며, “재외동포청과 함께 명실상부한 1000만 도시로서 세계 초일류도시의 추진동력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인천을 재외동포 비즈니스 허브이자 재외동포 가치 창조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천을 개방, 포용, 다양성을 갖춰 전 세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초일류도시로 만들어 재외동포 여러분께 최고의 대우를 약속드립니다”고 덧붙였다.

□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가지는 의미

이번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시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합친 1천만 시민의 지지 속에 인

천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2020년 12월 기준 193개국 750만 명으로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홍콩, 싱가포르가 세계 화상(華商)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인천 시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의 구심점으로서 글로벌 도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국제기구 유치 등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시의 핵심 공약사업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치되면서 단순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넘어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전략적 투자유치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해 짐으로써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하다. 인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유치로 지역 내 연간 96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58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1,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인천이 결정된 이유

시는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인천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재외

동포가 가장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시가 재외동포청 유치활동 내내 강조해왔던 최대 경쟁력이다. 또, 전국 최대의 경제자유구역, 재외동포 전용 거주 단지, 국제학교 등 글로벌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1902년 최초 이민자 121명이 떠난 근대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는 상징성도 인천이 재외동포청 최적지인 요소들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연이은 지지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 그동안 재외동포청 유치 추진경과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외동포청 유치가 인천시 전체가 ‘원팀’이 돼 이뤄낸 쾌거라는 소회를 밝혔다.

시는 재외동포청 설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동안 광폭 행보를 펼쳐왔다. 유정복 시장은 시·도지사 최초로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하는 등 정부·국회의 문을 연일 두드리며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를 호소했고, 호주, 유럽, 하와이, 홍콩 등을 직접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재외동포의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 2월 관련 법안 통과로 재외동포청 설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지역사회가 하나 돼 인천 유치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했다.

시의 노력으로 유럽과 우즈베키스탄, 하와이, 홍콩, 라오스, 대만, 카자흐스탄, 미국의 한인 단체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공식 지지하는 등 전 세계 재외동포가 인천 유치에 힘을 실어줬다. 이와 함께 시

민운동본부 출범과 주민단체, 정계·학계·종교·문화계 등의 지지 선언, 인천시의회와 군수·구청장의 지지 결의 등 지역사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인천 유치에 동참했다.

□ 재외동포청 개청 준비 등 향후 계획

시는 6월 5일 개청 예정인 재외동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해 안정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구체적인 청사 위치와 입주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외교부,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해 청사 설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전 세계에서 경제사절로 활약하고 있는 750만 인적자산을 활용해 인천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외동포 친화적 경제환경을 기반으로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모국투자를 창출해 한상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인천시와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외동포 관련 시책을 추진해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재외동포가 선호하는 정착지로 자리매김해 개방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갖춘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 브리핑 사진은 브리핑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 참고 > 1. 재외동포청 관련 경제적 효과 참고자료
2. 그동안 국내외 유치활동

붙임 1 재외동포청 관련 경제적 효과 참고자료

[표 1] 재외동포재단 사업내역 및 사업비('21년)

사업 구분	사업비 (백만원)
교육사업	16,343.8
교류지원	11,821.2
조사연구	719.6
차세대사업	5,582.8
한상네트워크	2,521.1
홍보문화	4,490.7
통합네트워크	1,695.5
인권지원	1,327.3
교육문화센터 건립	1,270.0
일반관리비	7,577.0
합 계	53,349.0

자료: 재외동포재단 감사보고서

[표 2] 재외동포재단 주요 MICE 행사 방문객 수

행사명	평균 방문객 수			연도별 방문객 수			해외 비율
	합계	국내	해외	'19년	'20년	'21년	
세계한인회장대회	405	96	309	496		313	76.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109	12	97	106		112	88.7
세계한인정치인포럼	62	-	62	59		65	100.0
세계한상대회	3,071	2,477	594	4,482		1,659	19.3
합계	3,647	2,585	1,062	5,143		2,149	-

자료: 재외동포재단 각 년도 연차보고서

주: 1.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일부 행사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축소된 행사 개최로 평균 방문객수 산정에서 제외함.

2. 해외방문객 비율은 연차보고서에서 국내, 해외방문객 수가 구분된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함.

[표 3] 재외동포청 유치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분	전지역	지역내(인천)	타지역(인천외)
생산유발효과 (백만원)	132,802	96,799	36,003
부가가치유발효과 (백만원)	73,937	58,684	15,252
취업유발효과 (명)	1,372	1,109	263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지역표(2015)를 활용한 연구진 분석 결과

붙임 2 그동안 국내외 유치활동

□ 해외 유치활동

- 전 세계 한인회장,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지지(‘22.10.7.)
 -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행사(‘22.10.4.~7./인천 송도) 時
- 유럽한인총연합회(25개국),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22.11.17./‘23.3.18.)
 - 인천광역시-유럽한인총연합회 양해각서 체결(‘22.11.17.) / 정기총회 서 만장일치 지지선언(‘23.3.18.)
- 하와이 재미교포단체(13곳),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22.12.20.)
 -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22.12.20.~24.) 時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회장 김병직 ‘23.2.17./회장 정명훈 ‘23.4.10.)
 - 유정복 시장 - 김병직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공동회장 면담(‘23.2.17.)
- 호주, 우즈베크(고려인), 홍콩, 라오스, 대만, 카자흐스탄,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등 전 세계 재외동포 인천 유치 지지

□ 국내 주요 유치활동

- 관계기관(외교부·행안부·국회) 방문 및 협조요청 지속

- ◆ 행안부장관(‘22.9.26.), 외교부장관(‘22.12.2.), 행안부차관(‘23.2.23.), 대통령(‘23.2.28.)
- ◆ 국회(예결위·상임위)(‘22.11.8.), 국회 외통위(‘23.2.23.), 지역국회의원 정책간담회(‘23.3.9.)
- ◆ 국민통합위 지역협의회(‘23.2.28.), 국민의힘 전당대회(‘23.3.8.), 중앙지방협력회의(‘23.4.6.) 협조요청

- 지역사회도 자발적 지지선언, 토론회 등을 통해 재외동포청 유치 염원

- ◆ 주민단체(시민운동본부, 인천총연, 주민자치협의회, 통·리장연합회, 새마을회, 경실련 등)
- ◆ 정계·시민원로(시의회, 군수구청장협의회, 동구계양구의회 인화회, 인천시민원로회의 노인회 등)
- ◆ 산업계(인천 대기업 CEO, 인천 마이스단체,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 ◆ 문화·예술·체육계(인천예총, 문화재단·문화예술단체장, 인천영상위원회, 인천시체육회 등)
- ◆ 종교·학계(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 교육청, 인천 총장포럼, 인하대학교,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 ◆ 토론회(인천일보 등 시민토론회, 인천경실련 등 학술토론회, 인천연구원 전문가토론회)

□ 그간 경과

‘22. 9월

- 호주 한인 간담회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의사 표명(9.22.)
- 행안부 장관 접견 및 협조요청(9.26.)
-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서 협조요청(9.28.)

‘22. 10월

-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행사 개최(10.4.~7.)
- 국민의힘 시당 당정협의회서 협조요청(10.25.)

‘22. 11월

- 국회(예결위·상임위) 방문 및 협조요청(11.8.)
- 인천광역시총연합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성명 발표(11.12.)
- 유럽한인총연합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11.17.)
- 더불어민주당 시당 당정협의회서 협조요청(11.29.)

‘22. 12월

- 외교부 장관 접견 및 협조요청(12.2.)
- 인천시의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결의(12.16.)
- 우즈베키스탄고려인협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12.17.)
- 인천시의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결의(12.16.)
- 하와이 한인단체(13개 단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12.20.)

‘23. 2월

-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병직)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의사표명(2.17.)
- 행안부 차관 접견 및 협조요청(2.23.)
- 국회 외통위위원장 접견 및 협조요청(2.23.)
- 대통령 접견 및 협조요청(2.28.)
-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 협의회 출범식 인천유치 협조요청(2.28.)
- 주민자치협의회 지지선언(2.28.)
- 인화회 지지선언(2.28.)

'23. 3월

-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지지선언(3.1.)
- 홍콩한인상공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3.2.)
- 인천예술인연합회 및 산하단체 지지선언(3.2.)
- 인천일보·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시민토론회 개최(3.3.)
- 함박마을 고려인 지지선언(3.4.)
- 인천서구청년단체 '서구청년125(多)다' 지지선언(3.5.)
-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시민운동본부(48개 시민사회단체) 출범(3.6.)
- 인천시 통·리장연합회 지지선언(3.6.)
- 인천시체육회 지지선언(3.6.)
- 인천새마을회 지지선언(3.6.)
- 인천 마이스단체 지지선언(3.6.)
- 인천경실련 및 학술단체 학술토론회 개최(3.6.)
- 연수구 주민자치협의회 지지선언(3.7.)
- 라오스한인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3.8.)
- 국민의힘 전당대회 협조요청(3.8.)
-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지선언(3.8.)
- 인천시설공단 지지선언(3.8.)
- 인천 영상위원회 지지선언(3.8.)
- 대만가오슝시한인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3.9.)
- 인천 시민원로회의 지지선언(3.9.)
- 인천 대기업 CEO 지지선언(3.9.)
- 인천 동구 의회 지지선언(3.9.)
- 지역국회의원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3.9.)
- 문화재단·문화예술단체장 지지선언(3.13.)
-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책토론회 개최(3.13.)

'23. 3월

- 인천시의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결의 대회(3.14.)
-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3.15.)
- 인천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개최(3.16.)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지지선언(3.16.)
- 인천경실련·인하대 지지선언(3.16.)
- 인천환경공단 지지선언(3.17.)
- 유럽한인총연합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3.18.)
- 카자흐스탄한인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3.20.)
-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지지선언(3.20.)
- 인천 총장포럼 지지선언(3.20.)
- 인천 검단노인복지관 지지선언(3.29.)

'23. 4월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대통령, 외교부장관, 행안부장관(대행) 협조요청(4.6.)
-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4.8.)
-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정명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4.10.)
-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촉구결의(4.10.)
- 인천 계양구 의회 지지결의(4.17.)
- 인천시의회 의원 릴레이 1인 시위(4.25.) 등